

지카바이러스 도민 불안감 확산

국내 의심 사례 신고 5건 중 3건 음성·2건 검사 중 WHO 비상사태 선포·도 보건당국 상황 예의주시

“태국 푸켓으로 신희여행을 가도 괜찮을까요? 가족들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오는 20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김모(29)씨가 신희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에 문의하는 전화 목소리엔 당혹감이 스며있다. (관련기사 6면)

그러자 여행사 관계자는 “신부님이 가시려는 신희여행 동선은 현지 발병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땀을 흘리면서 김 씨를 안심시켰다.

여행사 관계자는 김 씨 경우처럼 동남아 여행지나 중남미 지역까지 신희

여행을 예약한 일부 예비 임신부의 여행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최근 지카바이러스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소두증에 대한 불안감이 전북도민을 엄습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감염자가 20여개 국가에서 발생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에 나서는 등 이에 대한 공포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H1N1), 2014년 소아마비,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지카 바이러스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숲모기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또 8월 예정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혹은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과거 중국에서 유행한 사스(SARS)나 동남아에서 자주 발생하는 렐기열 등이 이에 속한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5건이 신고 됐으며 3건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건은 검사 중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우선 도내 각 14개 지자체 보건소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린 후 관련국가 방문 이후 발열, 눈충혈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토록 당부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아직은 모기가 활동할 시기가 아니라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예방차원에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 도도동 일대 황새 서식

환경단체, 항공대대 이전 부지 재검토 요구

전주시가 206항공대대 이전을 추진하는 도도동 주변일대에서 멸종위기 조류가 대규모로 발견돼 도내 환경단체 등이 이전 부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전북녹색연합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부지 주변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1급 조류인 황새 2마리와 멸종위기2급 조류인 노랑부리저어새 111마리,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1만5천여개체가 도래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 동안 도도동 항공대대 부지와 주변 만경강 일대를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 주변에서 멸종위기 2급 조류인 큰기러기 1만여개체가 먹이(보리쌀)를 먹고 있는 것을 확인한데 이어 사업부지에서 약 1.5~2km 떨어진 만경강에서 황새 2마리, 노랑부리저어새 111마리가 도래한 것을 확인했다.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가 도래한 지역은 사업부지 밖이지만 헬기가 매일 정기적으로 이륙과 장주비행(훈련비행)을 실시할 노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에 없는 지역이다.

특히 황새는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매우 희귀한 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적색목록 위기종(EN)’으로 지정한 멸종위기종으로, 국내에 10여마리만 도래하는 진귀한 겨울철새다.

노랑부리저어새 역시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해 적색목록 취약종(VU)으로 분류된 멸종위기종이며, 환경부에서 멸종위기2급으로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200여 마리만 도래하는 귀한 새이다.

이밖에도 멸종위기 2급 조류인 알락개구리매, 잣방개구리매와 천연기념물 쇠부엉이, 말뚝가리 등의 서식도 함께 확인됐다.

전북녹색연합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 전주항공대대 이전 추진 평야지대와 주변 만경강 일대는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과 월동에 매우 중요한 위치로 판단된다”며 “쇠기러기와 청둥오리, 흰참뚱이 등 수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는 생태적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할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재기자



엄마의 밥상 성금 전달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한옥속박채업협회 후원회 협회장과 임원진들이 2일 전주시청을 방문 김승수 시장에게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성폭행 무고’ 50대 여성 집유

전주시법 형사1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일 이웃집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몰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이웃인 B(58)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가계에 찾아가 스스로 옷을 벗고 B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성범죄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기자

여성 핸드폰 강탈 30대 ‘덜미’

새벽 귀가를 서두르던 여성을 제압해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2일 귀가하는 여성의 휴대폰을 강취한 혐의(강도)로 조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30분경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음식점 앞을 지나던 A(20·여)씨의 입을 틀어막고 제압한 뒤 휴대폰 1대(시가 99만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조씨는 “월급도 못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노영 기자

전북경찰,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추진

혼잡지역 경찰 집중 배치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설연휴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해 단계별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관리는 1단계로 오는 4일까지 전동시장과 대형마트, 공원묘지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2단계(5일~10일)로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 공원묘지 등 성묘, 귀경 귀성길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 등 가용경찰력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교통관리 기간에는 순찰차 141대와 싸이카(15대), 헬기(1대) 등 경찰장비 173대를 집중 투입하고, 하루 평균 490명의 경찰력을 교통 혼잡 예상지역에 집중 배치해 교통 혼잡구간 우회조치 등 원활한 교통소

통을 유도하고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혼잡·정체 예상구간 28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교차로 꼬리물기·꺼어들기 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백화점(1)과 대형매장(23), 전동시장(25), 터미널(26), 역(6) 등 81개소에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상설중대 등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박용주기자

전주시 표준주택가격 3.15% 상승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2016년 1월 1일 기준 전주시역 표준주택가격 1804호(완산구 859호, 덕진구 945호)를 결정·공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6호)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전주시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완산구가 3.94%, 덕진구가 2.37% 각각 상승했다.

주요 가격 상승 요인은 한옥마을 인근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효천지구·하가지구·만성동법조타운·에코시티, 재개발 정비구역 인근 등의 수요 증가와 재조달 원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전주시역 표준주택 중 가장 비싼 곳은 효자동3가(대지341.8㎡, 건물788.84㎡)에 있는 주택으로 가격이 6억6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정·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군산 삼학동 주택 화재 60대 추정 男 숨진채 발견

지난 1일 밤 10시20분경 군산시 삼학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주택 81㎡가 전소돼 1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사망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노영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곁을 지켜드리는데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전북은행